



1994년 열린 제1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정쟁한 선배들을 누르고 우수투수상을 수상한 광주일고의 김병현(당시 1학년)은 2회 대회때는 타격상을 수상하는 등 투·타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등기 빛낼 '불꽃타' 투수 나올까



D-3

수 많은 스타들이 다녀간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대회는 1994년 첫 발을 내디뎠다. 1회 대회에서 광주일고는 당돌한 1학년 '핵 잡수함' 김병현을 앞세워 동대문상고(현 청원고)를 누르고 초대 우승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 대회에서 팀의 승리를 견인한 김병현은 우수투수상을 받으며 무등기 스타로 떠올랐다. 김병현은 다음해에는 타자로 맹활약했다. 14타

김병현 5할 서재응 6할 타율 '1인 2역' 투·타 활약
지난해대회 마산고 박상혁 투수 타격·최다안타상
팬들, 올 어떤 선수 스타 탄생할지 벌써부터 관심

수 7안타로 0.500의 타율을 기록한 김병현은 타격상 3위에 오르며 투·타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컨트롤의 마법사' 서재응도 무등기 출신이다. 1회 대회에서 1년 후배 김병현과 팀의 승리를 합작한 서재응은 6타수 4안타 0.667의 타율로 초대 타격왕에 등극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영원한 아기 호랑이' 투수 김상진은 2회 대회 때 3개의 타이틀을 휩쓸며 모교인 흥고의 우승을 만들어냈다. 마운드를 완벽하게 수성하며 우수투수가 된 김상진은 타석에서는 2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홈런왕

도 동시에 거머쥐었다. 타석과 마운드를 오가는 활약으로 최우수선수상도 차지한 김상진은 무등기를 통해 무서운 신인 탄생을 알렸다. 이처럼 예전 고교야구에서는 치고 달리고, 던지고 막으며 맹활약 하는 선수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1인 2역을 하는 만능선수는 팀 승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2006년 13회 대회 진흥고의 우승에는 괴물투수 정영일이 있었다. 앞서 열린 대통령배에서 경기고를 상대로 13과 3분의 2이닝동안 23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한국야구 한 경기 개인 최다 탈삼진 기록

을 썼던 정영일은 무등기 결승에선 7이닝 1피안타 1볼넷 12탈삼진 무실점의 완벽 투구로 구미전자공고를 누르고 승리투수가 됐다. 정영일은 결승전 타석에서 5타수3안타를 터트리는데 등 대회 최우수선수와 함께 최다타점상(5타점)을 동시에 석권했다.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마산고 출신의 투수 박상혁도 지난 대회에서 가장 많은 이닝(21과 3분의1이닝)을 소화하며 2.95의 평균자책점으로 3세이브를 챙겼다. 청원고와의 결승전에서 8이닝 6피안타 1피사사구 6탈삼진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타격상(0.500)과 최다안타상(6개)을 수상하며 동봉서주했다. 하지만 2004년 고교야구에 지명타자제가 도입된 이후 투수와 타자의 분업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선수번호와 타고투지 심화하는 지명타자제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 이번대회에서는 어떤 선수가 스타로 거듭날지 아마 야구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첫 구원승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중간 계투로 보직이 바뀐 뒤 첫 구원승을 올렸다. 박찬호는 11일(한국시간) 뉴욕 시티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와 방문 경기에 4-4로 맞선 9회말 등판, 2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았으나 삼진 2개를 슈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체이스 어틀리가 연장 11회초 우월 솔로포를 터뜨려 5-4로 이기면서 박찬호는 행운의 승리를 안았다. 지난달 13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2점만 주는 호투로 시즌 마수걸이 승리를 따낸 뒤 29일 만에 승리를 보냈다. 시즌 성적은 2승1패, 평균자책점도 6.80에서 6.50으로 낮췄다. 박찬호는 통산 119승(93패)째를 올려 노모 히데오가 보유 중인 아시아투수 통산 최다승(123승)에 4승차로 다가갔다.

박찬호는 9회말 2사 후 연속 안타를 맞아 끝내기 패배 위기에 몰렸지만 루이스 카스티요를 땅볼로 잡고 볼을 깎다. 10회말에도 2사 후 안타를 내줬지만 데이비드 라이트를 뜬공으로 잡고 임무를 완수했다. 37개를 던져 22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고 최고구속은 시속 153km를 찍었다. 8일 다저스와 경기에서 3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로 시즌 첫 홀드(세이브 요건)를 갖춘 중간 투수에게 주는 기록)을 올리는 등 볼펜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추신수 이틀째 무안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이틀째 무안타로 부진했다. 추신수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홈 경기에 우익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3차례 타석에 들어섰으나 안타를 치지 못했다. 추신수는 2회 선두 타자로 나와 캔자스시티 선발 투수 길 메시에를 헛스윙 삼진당한 데 이어 4회에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6회 다시 타석에 섰지만 1루 땅볼에 머문 추신수는 8회 대수비 크리스 히메네스로 교체됐다. 추신수는 3회초 수비 때 1사 3루에서 데이비드 드지저스의 타구를 뜬공으로 잡아 홈으로 송구해 쇄도하는 3루 주자 토니 페냐를 잡아내는 호수비를 보여주며 강한 어깨를 과시했다. 타율은 0.295에서 0.290으로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타선이 삼진 12개를 당하는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0-9로 대패했다. /연합뉴스

임용규 주니어테니스 4년연속 정상

임용규(18·안동고)가 제53회 장호 흥종문배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남자부에서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임용규는 11일 중구 장충동 장충코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부 결승에서 정홍(16·삼일공고)을 2-0(6-4 6-4)으로 물리쳤다. 지난해 장호배 사상 최초로 남자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임용규는 주니어 마지막 해인 올해 4년 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1세트 정홍의 첫 서브 게임을 때내며 6-4로 기선을 제압한 임용규는 2세트 4-4로 맞선 상황에서 정홍의 서브 게임을 듀스 끝에 브레이크해 2-0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임용규는 "후배와 만나 부담도 됐고 발 움직임이 좋지 않아 어려웠지만 서브가 잘 들어가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여자부 결승에서는 한나래(석정여고)가 홍현휘(경화여고)를 2-1(4-6 7-6(3) 6-4)로 꺾고 2년 연속 우승했다. 한나래는 2세트 게임스코어 5-2로 앞서다 내리 세 게임을 내주며 무너지는 듯 했지만 타이브레이크 끝에 세트를 지켜낸 뒤 3세트에서 역전에 성공해 3시간30분이 넘는 협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연합뉴스

임창용 '미스터 제로맨'

임창용(33·아쿠르트 스왈로스)이 일본프로야구 12개 구단 마무리 투수 중 유일하게 자책점이 없는 투수로 남았다. 임창용과 함께 '미스터 제로' 행진을 벌였던 니혼햄 파이터스 소방수 다케다 히사시가 22이닝 만에 첫 자책점을 기록했다고 일본 언론이 11일 인터넷 판에서 전했다. 다케다는 전날 홋카이도 삿포로의 마루야마 구장에서 벌어진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인터리그

홈경기에서 5-2로 앞선 9회초 등판, 볼넷 1개와 안타 2개를 허용하고 1점을 줬 무자책점 행진이 깨졌다. 강풍이 불어 고전한 다케다는 "첫 자책점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평균자책점 0.41을 기록한 다케다는 12세이브째를 올려 퍼시픽리그 구원 1위를 달렸다. 한편 23경기에 등판한 임창용은 23과 3분의1이닝 동안 자책점을 단 1점도 주지 않고 퍼펙트 행진

다케다 무자책점 행진 깨져
일 프로야구 12개구단서 유일

중이다. 지난 3일 세이부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실점을 기록하던 히데오가 1사구 실책을 범했기에 자책점도 기록되진 않았다. 8일 니혼햄과 경기에서 동점 상황에 나와 타선이 점수를 뽑아주면서 시즌 첫 승리를 거둔 임창용은 그러나 지난달 27일 오릭스를 제물로 시즌 15세이브를 올린 뒤 보름간 세이브를 추가하지 못해 세인트루이스 구원 선두 나가카와 가쓰히로(히로시마·19세이브)와 격차가 4개로 벌어졌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11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열린 에드바스톤클래식 테니스대회에서 미국의 알렉스 글래저를 상대로 서브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11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열린 에드바스톤클래식 테니스대회에서 미국의 알렉스 글래저를 상대로 서브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PGA시니어투어 한국서 연다

내년대회 인천송도 개최

미국프로골프(PGA)의 시니어투어인 챔피언스투어 공식 대회가 내년 가을 한국에서 열린다.

PGA 챔피언스투어 대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썬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와 PGA 투어는 1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에 위치한 썬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챔피언스투어를 열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썬 니클라우스와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2010년 공식 개장 예정인 썬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의 공사 현장 답사를 위해 방한 중인 니클라우스는 "몇 년 전부터 이 계획을 시작했다. 현재 골프장은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투어 대회를 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투어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썬 니클라

우스 골프클럽 코리아가 세계적 수준의 특별한 코스라는 점과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의 인지도를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72, 7천257야드 규모로 지어지는 썬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는 니클라우스가 직접 디자인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내 유일의 골프장이다.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린 예정인 2010년 대회는 우승상금 45만달러(한화 5억 9천만원) 등 총상금 300만달러(한화 39억원)가 걸려 있다. 대회를 주관할 IMG는 "한국이나 아시아권 선수들의 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PGA 투어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50세가 넘는 선수만 될 수 있는 챔피언스투어는 베른하르트 랑거, 로렌 로버츠, 마크 오메라, 프레드 핑크, 제이 하스, 등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2009시즌은 총상금 4천 890만달러의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그랑프리 예비 엔트리 19명 확정

대한배구협회는 11일 2009 그랑프리 세계 여자배구대회(7월31일-8월23일)에 출전할 국가대표 후보 19명을 확정했다. 레프트에는 김민지(GS칼텍스), 김연경(일본 JT 마베라스) 등이 포함됐다. 라이트에는 배유나(GS칼텍스) 등이 이름을 올렸고 센터에는 김세영(KT&G) 등이 뽑혔다. 센터 전민정(흥국생명)은 무릎 부상으로 빠졌으며 센터 김희진(중앙여고)은 고등학교 생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는 세계 상위 12개국 여자 국가대표팀이 150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매년 겨루는 대회다. 한국은 2006

년 이후 3년 만에 참가한다. <여자 대표팀 예비 엔트리> ▲감독 = 이상희 ▲선수 △스프레드 = 김민지 오현희(GS칼텍스) 윤혜선(현대건설) 김연경(일본 JT 마베라스) 한송이(흥국생명) 이연주(KT&G) △라이트 = 나혜원 배유나(GS칼텍스) △세터 = 염혜선(현대건설) 이소라(한국도로공사) 김사니(KT&G) △센터 = 김혜진(흥국생명) 지정희(GS칼텍스) 김세영(KT&G) 이보람(한국도로공사) 양효진(현대건설) 김희진(중앙여고) △리베로 = 김혜란(한국도로공사) /연합뉴스